<얼음땡> (2021, 선효정)

S#1. 건대 캠퍼스 안 벤치, 낮

음악이 흐르고, 카메라가 화사한 봄날의 캠퍼스 안을 비춘다. 나무 밑 부서지는 햇살 속에서 한 남자가 서있다. 햇살조각을 맞고 서 있는 남자는 말끔한 남친룩 차림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누군갈 기다린다. 남자의 얼굴에는 설렘 섞인 미소가 가득하다. 이어 등장하는 여자. 여자의 차림도 말끔청순한 여친룩이다.

남자: 이거.. 길가다가 너 닮아서 너 생각나길래... (꽃다발을 건네며) 받아줘라.
여자: (빙긋 웃으며 꽃다발을 잡는다)
남자: 내가 정말 얼마나 이런 순간을.... 많이 상상해왔는 ㅈ..
여자: 컷.
남자: ..어? 지금 무슨...

(슬레이트 치는 둔탁한 소리) "탁".

창주, 퍼뜩하며 정신을 차린다. 벤치에 앉아있는 창주, 그의 시선 끝엔 나무 밑의 한 커플이 있다. 조용히 시선을 거두는 창주, 긴 한숨을 푹 하고 쉰다. (독백혼잣말) 하늘을 보며 눈을 꾹 감다가 눈을 팍 뜨니 웬 여자실루엣이 있다. (희미하게) 너 뭐하니? 놀라서 숨을 헉! 먹고 어는 창주

S#2 초등학교 운동장, 낮 (과거)

화면, 과거로 회상된다.
어린 창주. 운동장 위 벤치에 앉아있다. 창주의 무릎 위에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있다. 스케치북에는 본인이 누군가와 같이 뛰어노는 그림이 투박하게 그려져있다. 그 앞에 떨어져서 대화중인 어른들. 창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어른 1 : (희미하게) 쟤가 창주에요? 귀엽게 생겼다
어른 2 : 그쵸~애가 참 공부도 잘하고 이뻐요. 근데 애가 여자애들만 보면 그냥 하드마냥 깡깡 얼어요 ㅋㅋㅋㅋ 귀여워 죽겠어요.
(어른들 웃는소리)
시무룩하게 스케치북에 뭔갈 끄적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창주.

어린지수: (불쑥) 너 뭐하니?
어린창주: ...!!! 지..지 지ㅅ ...
친구들(목소리): 야!!! 쟤 또 망상증 걸렸따!!! 변태 꼬추장 새끼 ㅋㅋㅋㅋㅋ~~ (시끌시끌)
(창주를 꼬추, 꼬추장이라고 하면서 놀리면서 낄낄대는 소리 멀어진다)

어린지수: 뭐라는 거야 쟤네는.. 야 너 또 혼자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어린창주: 아이 그게 아 음 ㅇ...
어린지수: (스케치북을 뺏으며) 이게 뭐야??? 고창주 머릿속엔 대체 뭐가 있나~~~
어린창주: ...ㅇ땡
어린지수: 뭐?
어린창주: 얼음땡..
어린지수: ...! 가자!

(행복한 피아노 배경음악)
즐겁게 뛰노는 두 아이.
(어린지수와 창주의 "땡!"하는 소리들이 들린다)

S#3 건대 예디대 앞, 낮

지수: 너, 고창주 맞지? 너 여기서 뭐하냐니까?

창주의 시야 흐릿하다가 초점이 잡힌다. 어렸을 때 지수의 얼굴이다.
빙긋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기는 지수의 모습, 슬로우모션 걸리며 황홀한 배경음악 흐른다.
놀란 토끼눈으로 얼어서 지수를 보는 창주.

지수: (맑게 웃으며) 여전하구나.

S#4 초등학교 운동장, 낮 (과거)
다시 벤치에 앉아있는 어린 창주. 앞에서 어린지수가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자신의 곁에서 수다떨다가 자리를 옮기는 어른들을 말없이 바라본다. 창주는 스케치북 위에 "얼음"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그걸 확 꾸기는 어린창주.

#Insert cut
S#1 의 이쁜 남녀가 나온다. 애틋하게 손을 잡고 있는 남녀. 이내 고개를 카메라를 향해 돌린다. 창주와 지수의 얼굴이다.

S#5 건대 예디대 앞, 낮

창주의 눈, 번뜩이고 주먹을 불끈쥔다. 벌떡 일어나 지수를 벤치에 앉히는 창주.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가 전환된다.
창주: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급하게)ㅈ, 지수야… 진짜 미안한데 있잖아 나 십오분만 주라!! 여기 꼭 있어야해 꼭이야 진짜!!!
이내 미친듯이 길거리로 뛰어가는 창주.

창주(독백): (헉헉대며 급박하게) 예디대에서 꽃파는 포장마차까지 대략 250m 왕복 500m ..! … 꽃을 구매하는 시간까지 하면 왕복 십분내외로 이 거리를 주파해야 한다..! 달려라 고창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제 나도 내 시나리오 속에서 살기 싫단 말이야!!!

S#6 길거리 꽃집 앞, 낮

창주(소리):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헐레벌떡 거리를 뛰어가는 창주의 발, 갑자기 멈춘다. 저쪽에서 즐겁게 수다떨며 성인용품 점에서 나오고 있는 동네친구들(커플)을 맞닥뜨린 것이다. 달려가서 목에다 헤드락을 거는 동네친구들.

동네친구(남): 야 꼬추!! 너 뭐하냐! 어딜 그렇게 가!
동네친구(여): 쟤 뭐야, 웬 꽃다발? 야, 너 설마….!
동네친구(남): 너 이거 딱보면 딱알어 너 임마 샛갸 이거… (눈짓)
창주: 아이…아 좀 꺼져라 !!
동네친구(남): 너이거 우리의 커플레이다로 바로 캐치했어.. 이새끼 여자 생겼어 이거!
깔깔대는 친구커플.
창주: 나 지금 진짜 급하거든?? 빨리 비켜라..(친구들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지만 저지당한다)
동네친구(여): 이걸 그냥 보낼 수 없지… 우리가 누구냐! 니 부랄친구들 아니겠냐! 아까 우리가 좋~은걸 쇼핑을 좀 했거든! 이리와 봐…!

동시에 창주에게 다가가는 두친구. 창주, 두려운듯한 표정을 짓는다.
동네친구커플, 장난스럽게 웃으며 창주의 가방과 주머니를 열어 각종 콘돔들과 물건들을 잔뜩 쑤셔넣는다.

창주: (얼굴이 빨개진 채로 발작하듯이 싫어하며) 아 뭐하냐고!! 진짜 이 또라이 같은 것들 … 그런거 아니라고!! 아 몰라 나 간다!!!!

동네친구(남): 야.. 근데 나 아까 창주 가방에다가 “그거” 넣어버렸는데 …
동네친구(여): 설마.. “그거”?
친구커플, 낄낄대며 장난스럽게 꽁냥대며 돌아간다.

S#7 건대 앞 거리, 낮

혼자 궁시렁대며 막 뛰어가는 창주. 손목시계를 보니 이미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주머니에서는 콘돔들이 후드득 떨어지고 난리다. 짜증내며 급하게 길거리에 떨어진 것들을 줍고 다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른다.
이쁜선배: 창주야! 너, 창주 맞지?

창주: (헥헥대며)어..! 서..선배 안녕하세ㅇ…
선배의 시선, 창주의 손에 잡힌 콘돔에 꽂힌다.
이쁜선배: (깔깔대며) 야, 너 여자 생겼니? ㅋㅋㅋㅋㅋ우리 창주 숙맥이라서 그런거 모르잖 ㅇ ,,
선배, 표정이 굳어진다. 이내 창주의 반대편 손에 들린 꽃다발과 헥헥대는 창주의 표정을 보게 된다.
창주: 선배… 그, 근데 진짜 만나서 ㅈ, 바 반갑고 너무 좋은데 (갑자기 빠르게 말하며) 제가 약속이 있거든요 안녕히계쎄ㅇ…!!!!
선배, 창주의 팔을 확 잡으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고개를 홱 돌려 창주를 본다. 입술을 깨물고 활짝 웃으며 콧소리를 내며 창주의 팔을 안는다.
창주 뜨악하는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시선을 선배쪽에서 다른데로 돌린다.
이쁜선배: (사근사근하게 창주에게 가깝게 붙으며) 창주야~ 누구 만나러 가는거야.. 여자야? 이 꽃다발은 .. 뭐야? 누군진 모르겠지만 여자애 되게 부럽다..이거 나주면 안돼?
창주 딱 얼어붙어 있다가 눈을 번쩍 뜨며 꽃다발을 꽉 움켜쥔다. 자존심이 상한 선배, 창주를 노려보다가 창주의 손에 있던 꽃다발을 확 낚아채 도망간다.
창주: 아아.. 아 선배..! 선배!!!!!! (한숨쉰다)

S#8 건대 예디대 앞, 해질녘

손목시계를 보니 이미 한 30분은 지난 것 같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듯이 뛰어가는 창주.
땀을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가니 지수가 돌아서서 가고있다.

창주: (헥헥대며) 아..! 잠깐 지수야 잠깐만!...

창주의 모습, 원래 자신이 상상했던 말끔한 남친룩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땀에 절어 남루하고 지친 모습이다. 급하게 매무새를 정리하는데, 가방 안에 꽃다발이 있다. 의아하지만 잘됐다는 듯이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낸다.

지수: 야, 너 뭐야!
창주: (분위기를 잡으며 꽃다발을 가슴팍으로 들어올리며) 드디어.
지수: 뭐?
창주: “안녕 오랜만ㅇ ㅣ…”
장난감 기계음: “sex! Sex! Sex! Sex! Sex! Sex! Sex! …..”

그때, 창주의 준비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꽃다발 안에있던 딜도장난감이 반짝반짝 불을 내며 소리를 낸다.
고요한 예디대 앞. “섹스!” 소리만 울려퍼진다.
창주, 3초간 뇌정지된 상태로 굳어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

창주: 어…!!어!!! 아니 지수야 그게 있잖아…그런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거냐면은 있잖아 내가 가..ㄱ 같 ㄷ 다가 그 ㅊ , 친구등ㄹ……

고개 숙인 창주의 시선에서 지수의 얼굴밑부분이 보인다. 지수의 표정 굳어있다.
창주: (울먹이며) 내..내가 진짜 이러려던게 아니라… 너한테 멋지게 인사하려고 그런건데….흐어엉.

카메라,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창주의 물건들을 하나씩 잡는다. 널브러진 가방과 그 속 콘돔들, 떨어진 가짜꽃잎들, 풀려버린 창주의 운동화 끈… 창주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지치고 헤졌다. 아직도 반짝이는 딜도장난감의 불빛.

창주 독백(off-screen voice): 상상만 해왔어 항상. 머릿속에선 다 되니까… 있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너랑 노는 상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때 너가 먼저 얼음땡하자고 해줬잖아. 그날은 정말 못잊어. 그때부터 매일매일 술래없는 혼자만의 얼음땡을 했던 거지. 그 다음날에 너 말도 없이 이사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거 알아? 너가 없어도 난 매일 혼자 얼음땡을 하고 있었어. 그때 이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긴장하고 이런게..굳어버리는게. 풀리겠지 했지만 아무리 이쁜 선배가 다가와도 난 그저 얼음이더라. 아마 나는 너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나봐.

지수와 창주, 고개를 들어 서로 눈을 마주친다.

창주: 사실 내 술래는 항상 너였으니까.

S#9 초등학교 운동장, 낮 (과거)

어린지수: (해맑게 창주를 향해 달려오며) 고창주!

S#10 건대 예디대 앞, 해질녘

지수, 창주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따듯하게 창주를 꼭 안아주며 말한다.
지수: (미소띈 얼굴로) “땡.“

(배경음악 흐른다)
메인타이틀 등장 후 엔딩크레딧.

THE END